

大邱의 視程減少와 大氣汚染에 關하여

이 영 옥* · 정 용 승
한국교원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

본 연구는 1989년 1월 부터 1991년 12월 까지 대구와 예천에서 관측한 저시정 (<10km)과 대기오염에 관한 것이다. 대도시인 대구에서 발생하는 10km 이하의 저시정과 스모그를 분석하였다.

3년간 관측된 저시정 (<10km) 일수의 연평균치는 대구 144일 (39.5%), 예천은 40일(10.9%)로 나타났다. 대도시인 대구는 계절에 관계없이 높은 저시정 일수를 보여주며, 9월을 제외한 전년이 월 11일 이상이었다.

시정감소는 대기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안개, mist 및 haze에 원인이 있으며, 대구의 연간 mist와 haze 발생일수 역시 예천에 비해, 훨씬 높게 나타났다.

대구에서 측정된 SO₂는 겨울이 높게 나타나며, TSP와 NO₂는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로 여름을 제외하고는 연중 높다. 오존은 광화학 반응이 활발한 여름이 높은 값을 보여준다.

대구와 예천의 추운 계절의 대기오염과 시정장애는 TSP와 NO₂ 및 SO₂의 높은 농도에 원인이 있으며, 따뜻한 계절의 시정감소는 오존과 여러가지 광화학 산화물에 의해 발생하는 광화학 스모그에 원인이 있다.